

## 쇠뿔 이름

### 조 명 래

뿔(角)이란 발굽을 가진 초식성 포유동물의 머리에서 자라는 뼈조각이다. 뿔의 크기나 모양 그리고 그 구성조직은 동물의 종류에 따라 다양하다. 즉, 어떤 뿔은 뼈로 되어 있으나, 어떤 뿔은 단단한 체조직으로 된 각소(角素 : 케라틴)로 덮여져 있고, 어떤 뿔은 완전히 각소로만 이루어져 있다. 또한 이러한 경단백질(硬蛋白質)인 각소는 손·발톱, 발굽, 부리, 깃털, 호저(豪猪)의 깃, 비늘, 등딱지 따위를 만들기도 한다.

사슴의 뿔과 가지진 뿔은 견고한 뼈로써 골격의 일부분이다. 쇠뿔은 공동(空洞)으로 된 머리뼈의 연속이며, 겉은 뿔로 된 덮개(초·韃)로 덮여 있다. 기린의 뿔은 털이 난 피부로 덮여진 독립된 뼈이다. 무소(코뿔소)의 뿔은 각소로만 이루어진 유일한 형태이며, 각소가 장기간 침착하게 되면 뿔을 형성하기 위해 털 같은 섬유도 함께 덮여진다.

대부분의 뿔은 영구히 몸체에 붙어 있게 된다. 그러나 영양(羚羊)과 같은 어떤 반추동물과 사슴족의 일원은 해마다 그들의 가지진 뿔을 탈락시킨다.

뿔을 가진 동물은 주로 그 뿔을 무기(공격수단)로 삼아 육식동물에 대항한다. 머리부위 이외에 있는 뿔 같은 성장물인 뱀의 비늘, 거북등딱지(별갑·鱗甲)등은 방어(보호)용에 사용된다.

옛날부터 우리 인간은 구멍난(속이 빈) 쇠뿔로 술잔, 식기(食器), 화약통, 구두주걱 등을 만들어 사용했고 뿔의 끝부분을 이용해 도장도 만들었으며, 남생이의 등딱지를 조각하고 광택을 내어 보석, 빗,

단추 등을 만들었고, 뿔을 갈거나 태우고 부드럽게 해서 비료, 골탄(탈색제, 안료) 및 그외 장식품을 만드는 재료로 이용했다.

원래 뿔(혼·horn)이란 말은 구멍난 뿔로 뿔나팔(각적)과 같은 악기를 만들어 농무경적(크고 탁한 소리)을 울렸다는 데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지금도 구부러진 숫양의 뿔로 만든 악기는 종교의식의 개회를 선포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또한 각등(角燈)으로 번역되는 랜턴(lantern)도 원래는 그 어원이 랜톤(lanthorn)에서 나온 이유는 불빛을 환하게 비추기 위해 얇은 뿔판을 사용했기 때문이라 한다. 우리도 한때 책받침을 뿔받침이라고도 불렀다. 그러나 뿔을 이용한 제품들은 유리와 플라스틱이 나오고 부터는 자연히 사라지고 말았다.

뿔을 이용해 우리 선조들이 만든 일상 제품으로는, 쇠뿔이나 양뿔 또는 물소뿔 같은 것으로 꾸민 활인 각궁(角弓), 짐승의 뿔로 만든 잔의 하나인 각배(角杯), 뿔을 쥔 다음 말려서 부순 가루를 말하는 것으로 나중에 비료로 쓰이는 각분(角粉), 뿔로 만든 비녀인 각잠(角簪), 피리의 하나인 각적(角笛), 남자의 성기와 닮은 장난감인 각줄(角一), 각질로 이루어진 판인 각질판(角質板), 안경테에 쓰이는 각테(角一), 편종·편경 따위의 악기를 치는 데 쓰는 뿔방망이인 각퇴(角槌), 조선 때, 정삼품 이하의 문무관이 차던, 검은 뿔로 만든 호패(號牌)를 말하는 각패(角牌) 등이 있다.

동물원에 가지 않고 우리가 뿔 달린 짐승을 볼 수 있는 것은 소, 염소, 양, 사슴, 노루 등에 국한된다. 이들 중에서 뿔을 자르는 동물은 현재로써는 소

\* 수원 갈촌동물병원

와 사슴 뿐이다. 사슴에서는 녹용과 녹혈을 보약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새로 돋은 연한 뿔(녹용)을 자르는 것이지, 실제로 사슴의 뿔인 녹각을 자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한 뿔을 자르는 일은 소 그것도 젖소에서만 생긴다. 뿔을 자르는 이유는 가축으로서의 뿔이 필요없기 때문이다. 물론 관리하기가 쉬우니까, 뿔이 빠져 출혈이 되고, 뿔이 부러져 전두동염의 유발을 예방하기 위해서 또는 소싸움으로 인한 뿔의 손상을 막기 위해서도 뿔을 자른다. 초유편기에 실시하는 제각술은 인두나 전기인두를 사용해 지지거나, 화학약품(가성소다)을 뿔봉오리 위에 바르지만 하면 되지만, 큰 뿔은 적어도 활차하신경(滑車下神經)과 험골측두신경(頰骨側頭神經)을 마취제로 차단한 다음 제각기로 단각시켜야 한다. 이때 가능한 각질을 벗겨 각태(角胎 : 뿔 속의 살)를 노출시키는 것이 뿔그루터기의 성장을 억제하는데 도움이 된다.

우리는 쇠뿔의 상태에 따라 소의 건강상태를 짐작하고, 암소 뿔의 나이테를 보아 분만 횟수와 나이를 헤아릴 수 있다. 단오와 같은 명절에는 억센 황소를 골라 뿔을 날카롭게 다듬어 산이나 들에서 소싸움을 벌였는데, 이때도 소싸움하기에 유리한 뿔모양[각상(角狀)·각모(角貌)]을 가진 황소를 우선으로 쳤

다. 쇠뿔의 색깔도, 물소의 뿔이 흑각이듯이 제각각이다. 뿔의 수도 두 개만 있는 것이 아니다. 육상동물 가운데 코끼리 다음으로 큰 무소는 한 개 또는 두 개의 뿔이 있을 뿐 아니라, 옥편에 나오는 회(犛)자의 뜻이 소 같고 네 뿔이 있는 짐승[獸似牛而有四角]이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이다. 각자무치[角者無齒 : 뿔이 있는 자는 이가 없다]란 말도 무각(無角)인 앵거스(Angus), 헤리퍼드(Polled Hereford), 쇼트혼(Polled Shorthorn)종과 양, 사슴, 노루, 영양 등의 암컷에는 적용될 수 없게 되었다.

대동물 임상수의사들은 가끔 몇가지 진단서(절각도살, 방혈조치, 겸안서, 임신진단, 상해 등)를 발급하게 된다. 이때 진단서의 표시동물의 특징란에 반드시 가마[선모(旋毛)]의 위치와 쇠뿔모양의 이름을 기재하게끔 되어 있다.

현재 상용되는 쇠뿔(牛角)의 이름은 표 1과 같이 많으나, 실제로 개업연령에 따라 동일한 뿔모양을 각자 다르게 표현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이 더 많다. 예를 들면, 비너를 꽃은 듯한 모양인 계각은 일자각 또는 평각과 같은 말이며, 동아 새국어사전에 한자어로 유일하게 나오는 쇠뿔명칭인 천지각은 교통각과, 단각은 절각과, 미향각(미향곡각)은 후향각(후향곡각)과 상향(곡)각은 천향(곡)각과, 지향(곡)

표 1. 현재 상용되는 쇠뿔이름 모음

- 계각(筭角), 교통각(交通角).
- 내전향각(內轉向角), 내향각(內向角).
- 단각(斷角).
- 무각(無角), 미향각(尾向角), 미향곡각(尾向曲角).
- 상륜각(上輪角), 상향각(上向角), 상향곡각(上向曲角).
- 일자각(一字角), 외전향각(外轉向角), 외향각(外向角), 유각(柳角).
- 잔각(殘角), 전륜각(前輪角), 전향각(前向角), 전향곡각(前向曲角), 절각(切角·截角), 제각(除角), 지향각(地向角), 지향곡각(地向曲角).
- 천지각(天地角), 천향각(天向角), 천향곡각(天向曲角), 측향각(側向角), 측향곡각(側向曲角).
- 평각(平角).
- 하륜각(下輪角), 하향각(下向角), 하향곡각(下向曲角), 후륜각(後輪角), 후향각(後向角), 후향곡각(後向曲角)

〈참고〉경기도 수의사회 설문조사.

각은 하향(곡)각과, 상륜각은 상향곡각 그리고 천향곡각과, 버들 가지 처럼 늘어진 유각은 지향곡각, 하향곡각 그리고 하륜각과 같은 말이다.

여기서 우리는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낱말을 들춰볼 필요가 있다. 뿔을 자르면서 흔히들 제각한다고 한다. 제각이란 말은 애송아지의 뿔봉오리를 지지거나 완전한 무각술을 실시할 때 쓰는, 뿔을 없앤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뿔을 자를 때는 반드시 단각이라고 해야 한다. 또한 단각을 가끔 절각이라고 쓰는 주의사도 있다. 한자로 쓰면 단각이란 뜻이 되나, 한글로 쓰게 되면 절각(折角 : 뿔이 부러짐), 절각(折脚 : 다리가 부러짐), 절각(截脚 : 다리를 자름)의 뜻으로 잘못 이해될 수 있다. 자른다는 뜻으로 쓰는 한자로 흔히들 절단[切(截) 斷] 또는 단절이라는 낱말을 떠올리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문제다. 그러나 절두(截頭), 단두(斷頭), 단미(斷尾), 단발(斷髮), 단지(斷趾) 등의 국어사전에 나오는 단어들을 연계하여 생각해 보면 뿔을 자르다라는 용어는 단각이 맞다. 다만 한자로 표기할 때는 절각(切角)이 아닌 절각(截角)만이 유효할 뿐이다. 어떤 주의사는 왼 쪽뿔은 무슨 뿔, 바른 쪽 뿔은 어떤 뿔이라고 표시하고 있다. 그렇게 쓰려면 한 쪽만 제각, 단각, 또는 뿔이 빠졌을 경우에 국한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우리말 쇠뿔이름과 뜻풀이(표 2)를 보면, 고추뿔, 노구거리, 새앙뿔(생뿔), 송낙뿔 및 자뿔뿔은 분명히 쇠뿔이름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우걱뿔, 작박구리와 뿔뿔(뿔대뿔)은 어느 특정 동물의 뿔이름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소 아닌 다른 가축에도 사용되었으리라 짐작된다.

오래도록 기억할 수 있고 낱말의 뜻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어원을 캐어 보는 것이다. 「고추」란 말은 곧다[휘저 않고, 똑바르다]와 곧추다[굽은 것을 곧게 하다]라는 동사와 한자-소뿔 곧을 세[製 : 牛角直立]자에서, 「노구거리」는 노구술과 걸이의 합성에서 변화하여, 노구술을 걸이에 좋은 모양이란 뜻에서, 「새앙」과 「생」은 모두 다 양념과 차(茶)로 쓰이는 생강과 같은 말이므로 생강같이 생긴 뿔이란 뜻에서 사용되었고, [송낙(←松蘿)]이란 소나무겨우살이로 만든, 여승(女僧)이 쓰는 모자라는 뜻이므로 아마도 그 모자와 닮은 모양에서, 「우걱」은 옥다[끝 부분이 안으로 구부러져 있다]의 변화에서, 「자뿔」은 자뿔지다[뒤로 넘어지다]라는 동사의 변형과 자뿔뿔 파[把 : 牛角相背]자에서, 그리고 「뿔」은 뿔[닭이나 새가 앉도록, 닭장이나 새장 속에 가로지른 나무 막대]의 모양에서, 「뿔

표 2. 우리말 쇠뿔이름과 뜻풀이

뿔 이 름	뜻 풀 이
· 고추뿔	양쪽다 곧게 선 쇠뿔.
· 노구거리	양쪽 다 안으로 꼬부라졌으나 하나는 높고, 하나는 낮은 쇠뿔.
· 새앙뿔, 생뿔	두 개가 모두 짧게 난 쇠뿔. 생강뿔.
· 송낙뿔(←松蘿)	둘 다 옆으로 꼬부라진 쇠뿔.
· 우걱뿔	안으로 구부러진 뿔.
· 자뿔뿔	끝이 뒤틀려 뒤로 갖혀진 쇠뿔.
· 작박구리	위로 뿔은 뿔.
· 뿔뿔	두 뿔이 다 밖으로 뿔어 일자(一字)모양으로 자란 짐승의 뿔.
· 뿔대뿔	가로 뿔힌 뿔.

<참고> 동아 프라임국어사전(1988).

동아 새국어사전(1994).

대]는 햇대[옷을 걸도록 방안 따위에 매달아 둔 막대]의 모양을 본떠 쇠뿔의 이름을 지었다고 서툴게 말할 수 있으나, 「작박구리」는 전혀 관련된 어원을 짐작키도 힘들었다. 주제님은 해설을 관용해 주시고 다함께 풀어야 할 숙제로 삼았으면 합니다. 차후엔 누구나 알기쉽게 쇠뿔이름의 도해까지 나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쇠뿔모양의 이름은 주로 임상수의사의 진단서에 등장합니다만 축주들에게도 소개시켜 알게 하는 것이 수의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을 것이며, 또한 순수한 우리말인 쇠뿔이름을 상용할 때 우리들의 선조들은 한풀이와 함께 우리들을 귀여워 하고 기꺼이 도와줄 것입니다. 우리는 배달나라의 수의사입니다.

“Veterinarian Oath”



“따뜻한 가슴을 가진 수의사”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따뜻한 체온으로,  
힘찬 심장의 박동으로...

그리고 나는 쓰러진 가축을 일으켜 세우는  
수의사임으로 서갈세를 처방합니다.  
함께 일어서서 푸른 미래를 향하고자...



수의사의 권위와 품위를 존중하는  
주식회사 과학축산  
수신자부담 전화서비스 080-023-2361

